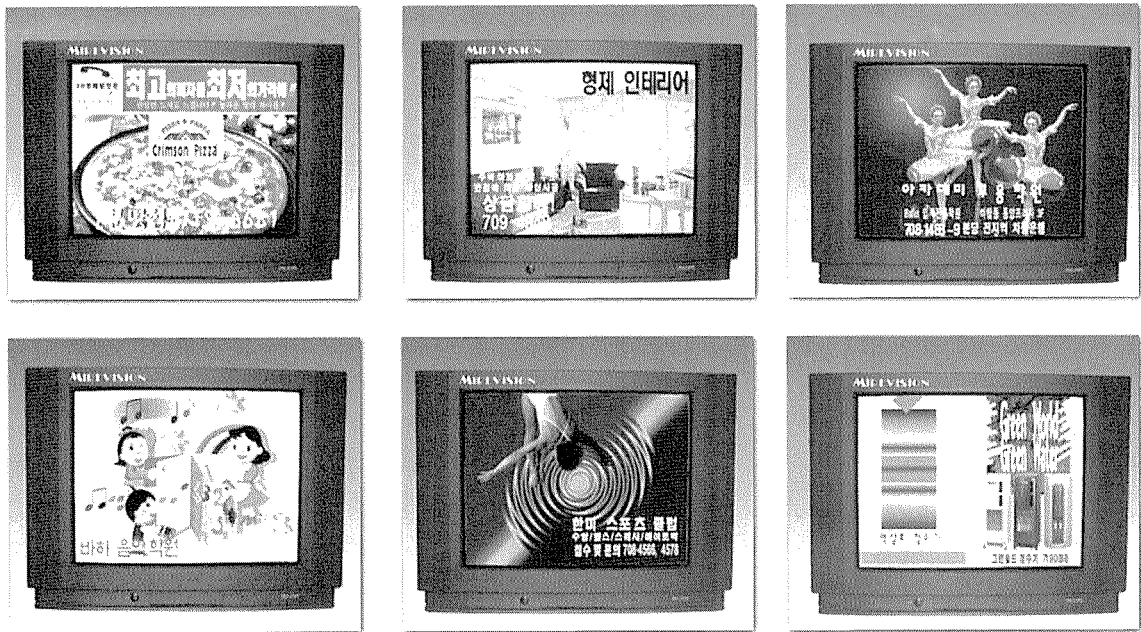


얼마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무료 배포되던 각종 생활 광고지를 이제는 영상매체로 볼 수 있게 됐다. '영상 버릇 광고'란 지역밀착형 중·소규모 자영 점포들의 다양한 정보를 기존의 TV CF 광고처럼 동영상을 비롯해 정지된 화면 및 문자,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29~52인치 컬러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내내 광고를 한다는 게 특징이다. 비용도 저렴하고 광고 효과도 우수하기 때문에 제과점들도 충분히 활용해 볼만하다.



제과점도 영상광고 할 수 있다

컬라 모니터 이용...지역밀착형 점포에 유리

컬라 TV 모니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영상 광고는 이제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제과점, 음식점, 가구점,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등 동네 점포들도 이제는 영상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지역밀착형 영상광고가 새롭게 대두된 것은 TV, 비디오, 컴퓨터 등 영상매체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이 이미 이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10~20대가 첨단 영상세대이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활용

지역밀착형 영상광고에 사용되는 광고매체는 정보 전달을 보다 손쉽게 진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또한 전단이나 팜플렛 등 지면(紙面)을 활용한 매체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세 상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매체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매체 개발에 도입시켰다는 것과 기존의 광고매체와는 색다른 정보표현 매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한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디스플레이 개념의 매체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고 설치 및 활용될 수 있다.

주로 설치되는 곳은 공공장소, 관공서, 학교, 호텔, 백화점, 빌딩, 은행, 병원, 지하철역 내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하다.

이때 설치되는 장비를 '영상광고기'라 부른다. 영상광고기란 한마디로 29~52인치 컬러 모니터가 장착된 광고자판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광고주들로부터 일정한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수주해 영상광고기를 통해 이를 주기적으로 방영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거나 구매력을 유발시키는 등 광고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현대는 광고 홍수시대일 뿐만 아니라 영상시대이다. 광고없는 마케팅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유통분야에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영상광고

기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발된 필연적인 첨단 광고매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영상광고기는 일반 LED전광판, TV CF 등과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대형 옥상 전광판 광고는 기계에 따라 수억원의 설치비가 들기도 하고, TV CF 광고는 제작비나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싼편이라 영세 기업이나 자영 점포들로선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영상광고기는 동영상 광고를 비롯해 간단한 문자광고, 애니메이션(만화, 그림 등), 정지화면 광고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에 따라 다양한 광고 형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영상광고기는 적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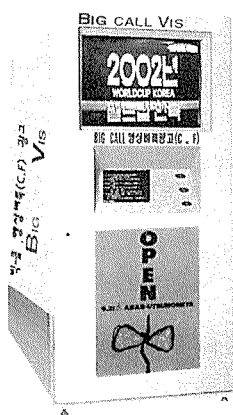
지역광고 매체로는 막강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인구가 많은 각 지역의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지역 관련 유통업체와 자영 점포들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지역밀착 영상광고업이 발생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영상광고기는 광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자영 점포들을 위한 효과적인 광고매체로서의 부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광고의 효과면에 있어 광고주의 다양한 욕구와 각각의 제품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실물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글/강영주>

영상광고 업체

(주)지한정보통신 ☎ (02)420-6280~2



↑ 지한정보통신의 '빅콜비전'

지한정보통신(대표 이상호)은 29~52인치 칼라 모니터가 장착된 빅콜비전(BIG-CALL VISION)이라는 영상광고기를 유동인구 다발지역에 설치해서 상품광고, 회사홍보, 이미지광고, 구인·구직광고, 공지사항, 점포광고, 개업광고, 알뜰정보 등을 1일 최대 120회 월 3,600회 이상 지속적으로 방영한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화면정보를 정보검색버튼으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과 국내 4대 컴퓨터 통신망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영상광고를 실시할 방침이며 음성정보서비스(ARS)를 활용해 영상광고에 게재된 각종 정보를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주 지원사항으로

할인카드도 제작, 무료 배포한다.

광고를 의뢰하면 본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사진이나 팸플렛, 전단, 상호, 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문안 작성에 대한 작업을 진행한다. 광고주가 비디오 동영상과 정지화면, 스틸, 그래픽, 애니메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본사 프로그램 제작실에서 편집·제작해 VCD(비디오 시디)나 CD-ROM 등에 저장, 빅콜비전에 장착하여 방영하게 된다.

한편, 지한정보통신 대표 이상호 씨는 "영상광고를 통해 경쟁력 확보, 상권확대, 구매력 유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6월 1일부터 전국 국철역에서도 영상광고기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광고 비용>

구분	방영시간	광고요금(월회비)	제작비	제작내용
3화면	6~8초	10만원	20만원	사진 및 그래픽 제작
비디오 동영상(CF)	12~15초	20만원	40만원	비디오촬영, 동영상, 그래픽 제작

* 광고계약 기간은 3개월/6개월/1년이며, 제작비용은 단안 번만 지불하면 된다.

(주)미래정보 ☎ (02)508-6842~3

지난해 연말 사업을 시작한 미래정보는 두 가지 방식을 내놓고 있다. 유동인구 다발 지역에 영상광고기를 설치, 일정 광고료(10만원/1달, 5000회 광고/1달)를 받고 다양한 업체와 점포들을 광고하는 것과 광고를 원하는

지역 점포 매장에 칼라 모니터를 설치해 해당 업소만 광고하는 방법(업소에 이미 TV 수상기가 있을 경우 투자비용은 총 60만원)이다.

"제과점과 같이 상권이 우수한 점포는 자체 매장에 칼라 모니터를 설치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미래정보 원용 사장은 말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을 적용해 컴퓨터 메모리칩(롬)에 정지된 영상을 입력시켜 모두 15가지 방법으로 영상을 표현한다. 칼라 모니터는 29인치가 표준 모델이다. 광고를 제작하기 이전에 지역 상권 조사를 실시하며 각종 광고 문안도 제작해준다. 또한 지역과 계절에 맞게 영상을 편집한다. 현재 LG백화점 고객 전용 셔틀 버스에 모니터를 설치해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주)오와이 ☎ (032)434-5002

오와이(대표 이창희)의 영상광고 시스템은 25인치 칼라 모니터 4대를 세로로 연결해 한 업체의 각기 다른 정보를 순차적으로 방영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컴퓨터 그래픽과 사진, 문자 등으로 영상광고물을 제작해 정보를 파일로 컴퓨터에 입력한 후, 이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파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 송출된 파일은 영상광고 시스템에 장착된 메인 컨트롤로가 자동으로 다운받아 광고 영상으로 표출한다. 이 시스템은 LED전광판 표출방식과 운영방식이 비슷하나 브라운관을 이용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모니터 4대 중 1대는 케이블 TV와 뉴스를 방영한다.

현재 국내 특허와 상표를 이미 등록해 놓은 상태이며 정보통신부로부터 우수 신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300군데에 영상광고기가 설치돼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을 받아 모두 100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고주 지원 사항은 지역 생활 정보지인 베틀시장을 통해 할인 쿠폰 광고를 해주며 전단을 무료 제작해 배포한다.

한편, 이 업체 대표 이창희 씨는 "일반적으로 제과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우수 상권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장소만 빌려주면 광고를 무료 제작해 방영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1달에 6,000회 정도 반복 상영되며 3개월 단위로 계약이고, 월 10만원의 광고비만 내면 된다.



↑ 오와이의 매트릭스 빌딩 영상광고 시스템(직립형)